

제2공항 관련 예산 상임위원회 문턱 넘어

제주도의회, 상임위 계수조정서 총 379억 손질 제2공항 개발 등 관련 7개 사업 조정없이 의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제2공항 관련 예산이 일단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일 계수조정안을 마무리하면서 제2공항

개발 사업 민관협약기구 운영·회의 참석수당 및 토론회 개최와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 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3억 2434만여원을 조정 없이 의결했다. 다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총 379억여원(일반회계 기준)이 손질됐다. 상임위별 조정(증·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30억 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8억 76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는 131억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69억 6220만원, 농수축경위원회는 99억 1800만원 등이다.

이 중 환도위는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 13억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20억원 등을 감액해 도로확포장사업과 내부유보

금 등으로 증액했다. 농수축경위원회는 제주 전기차 선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0억 3885만원 중 6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 7억8000만원 등을 감액했다.

문광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예산 28억원 중 23억원 등, 보건복지위는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70억원 중 20억원 등, 행자위는 국가재정지원제한대학 역량강화 사업과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사업 등을 감액했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결단 앞두고 고심중인 강창일 의원

12월 중·하순 즈음해 총선 출마여부 공식화 예정 지역민심 청취 후 결정할듯



들의 용퇴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처럼 그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67·사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 출마 여부를 공식화해야 할 시점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갑 지역구에서 16년 간 국회의원 자리를 수성한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출마 여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16년 만에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열릴 지가 관심이며, 야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여당 후보의 용퇴로 4연속 제주 지역 의석 확보 실패의 멍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의 출마 여부는 제주 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에서도 관심사다. 중앙당 차원에서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중진·다선 의원

들의 용퇴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처럼 그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내년 21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출마여부) 고민하겠다"며 "선후배와 동료, 제주도민의 의견을 청취해 12월 중·하순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그가 12월 중·하순으로 시간표를 정한 것은 오는 17일이 제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된 선거 출마자들 면면을 확인한 뒤 결정을 내릴 지가 출마는 불출마든 명분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해 5선 도전을 하는 것에 개인적인 부담감을 종종 내비쳤다. 그러나 후보군이 탄탄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출마 여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부미면기자 bu8385@ihalla.com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제주서도 '인권주간' 운영

제주도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인권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10일 웰컴센터에서는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주, 변방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제로 인권주간 동안 제주도청과 교육청, 도의회에서 포스터 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4~18일 사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인권영화 상영회도 개최된다.

이 밖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인권문화회 등 민간 주도 프로그램도 제주 곳곳에서 진행된다. 송은범기자



"국무회의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토부 "지역-지역, 중앙-지역 협력 미래상 제시"

2040년까지의 새로운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이 3일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5차 계획은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 ▷지역별 특성과 수요

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 대비를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며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등 4가지 기본목표를 담은 발전방향을 정부에 제시했다. 국회·부미면기자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후속조치 속도

도, 개선안 법령정비 착수 원 지사, 중간정책회의서 후속조치 마련 만전 등 당부

제주자치도가 국회 분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중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면서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당부했다.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28일 국회 제출 이후 지난 11월 19일 국회 분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향상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도민의 복리 증진,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오른지기자

꽃피워라 4·3정신

4·3 평화합창단

제 2 회 정기연주회

GUEST : 소프라노 강혜명, 최상돈, 농협 하나로 합창단

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 30분전 선착순 무료입장

단체예약 및 문의 : 010-3665-7228

SOPRANO
강정자, 김경자, 김복희, 김순애, 김영숙, 김영심, 김유희, 김정숙, 김정자, 김경희, 김효자, 문옥희, 성순심, 안연옥, 양순경, 양희정, 이민애, 이영자, 이정자, 정해정, 좌미자, 홍경임

ALTO
강능옥, 강명복, 강순자, 강승민, 강원실, 강경생, 김다녀, 문옥희, 문정순, 박성대, 박수자, 양지순, 오연순, 오정열, 임정희, 전명희, 현수자

TENOR & BASS
고동선, 김필문, 박성대, 양태엽, 오진선, 이지훈

단장 : 김필문 지휘 : 이영호
반주 : 김양남 사무 : 문성호

농협 제주지역본부 "김장직거래 장터" 운영

김장 채소 파격 할인 판매
배추 1,000명 한정판매

1. 기간
12. 09.(월) ~ 12. 11.(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2. 장소
농협제주지역본부 외부주차장

3. 판매 품목
시중가 대비 20 ~ 50% 대폭 할인

품목	산지	비고
배추	해남산	8,500원 (망/3포기)
무	제주산	개당 1,500원
(태양)고춧가루	국내산	1kg 35,000원
간마늘	제주산	1kg 5,000원
감귤	제주산	고당도 (11브릭스 이상)
돼지고기	제주산	시중가 대비 20% 할인

제주 선학에밀타케 신부 업적조명 행사

심포지엄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과 가치 전승'

2019년 12월 7일(토) 오후 2시~5시
천주교 제주교구 동광성당

■ 기조강연 : 문창우 비주교
- 제주와 함께 걸었던 선교사- 에밀 타케

■ 주제발표
1) 에밀 타케 신부의 제주에서의 사목활동 / 박찬식(역사학자, 전 제주학연구원장)
2) 에밀 타케 신부의 식물학 연구 업적과 제주 식물의 가치 전승 방향 / 김찬수(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원장
3) 생애 영상에 비추어 본 에밀 타케 신부의 업적 / 황태중(천주교 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장)

■ 토론 : 좌장 강만생 원장(제주역사문화진흥원)
강시영(전 한라일보 선임기자), 송관필(제주생물자원연구소장), 황종열(두물머리박물관연구소장)

전 시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13일(금)~12월 22일(일) / 개막 12.13(금) 5:00pm
서귀포 예술의전당

■ 참여작가 : 정미연(소화 데레사/서양화) 외 도내의 작가 7명(강정효(사진), 박안자(안화/동화), 아그네 라티비네(리투아니아/미니어처, 그림), 이승수(설치미술), 전영일(빛조각), 전홍식(도판화), 허정숙(한국화))

행사 문의 : 726-6425, 738-2606

주최_천주교 제주교구,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후원_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구 서귀포성당